

보도설명자료

('22. 1. 25)

수신 : 산업통상자원부 등록기자

제목 : 美 정부가 철강 232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잘
모른다고 한 것은 사실과 다름

(1.25일자 한국경제 「통상교섭본부, 업계 요구 강력 전달했었는데...
美선 전혀 몰라」 보도에 대한 설명)

1. 기사내용

- 업계에 따르면 한국정부가 美 철강 232조치와 관련해서 소극적으로
대응하여 美 정부 관계자들이 한국의 요구사항을 거의 모르고 있음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입장

- 美 정부가 철강 232조치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잘 모른다고
한 것은 사실과 다름

- 그간 산업부는 고위급 회담 등 계기에 美 정부인사들에게 철강 232
조치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왔으며,

* 한미 상무장관회담('21.11), 한미 FTA 공동위원회('21.11) 등

- 美측은 동 이슈에 대한 한국 내 관심을 잘 알고 있고, 양국 간
파트너십에 기반하여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자는 입장을 보여왔음

- 산업부는 지속적으로 철강 232조치에 대한 우리 측 입장을 미국
정부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 협의해 나갈 계획임

※ 문의: 통상법무기획과 전동욱 과 장 (044-203-4870)

장영빈 사무관 (044-203-4871)